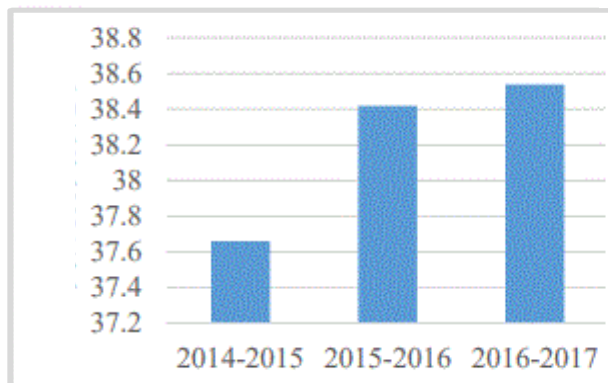


## [ 중동·아프리카 비즈니스 정보 ]

## 이란, ICT 시장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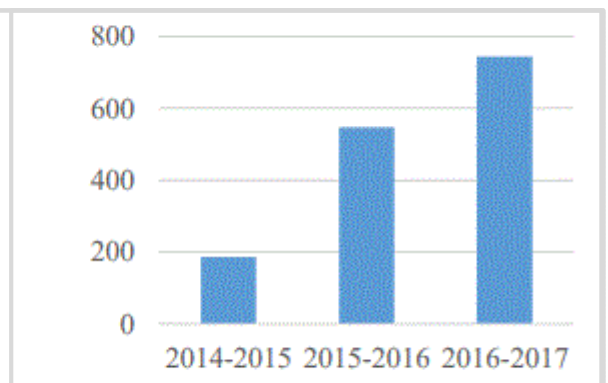
이란의 ICT 시장은 중동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이며, 그 중에서도 통신 부문의 성장률이 가장 높다. 2016 ~ 2017년 이란의 ICT 시장 규모는 108억 1,000만 달러이며, 그 중 80억 달러는 통신 부문에 의한 것이었다. 2016 ~ 2017년 이란의 GDP 대비 ICT 부문의 비중은 2.7%이었다. 이란 통신 부문 기업은 주로 국가가 보유하며 시장의 일부는 가까운 장래에 민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이미 중동에서 가장 큰 모바일 시장이며, 2015년 기준 1억 300만 대의 휴대 전화가 개통, 4,700만대의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고 중동 지역에서 인구 1인당 인터넷과 휴대 전화의 사용률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ICT 인프라는 구식이며,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100명 당 고정전화계약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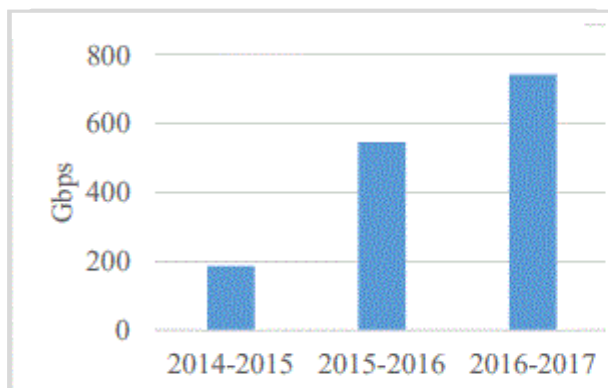
출처 : 이란통신연구센터(ITRC)

〈인구 100명 당 휴대전화 계약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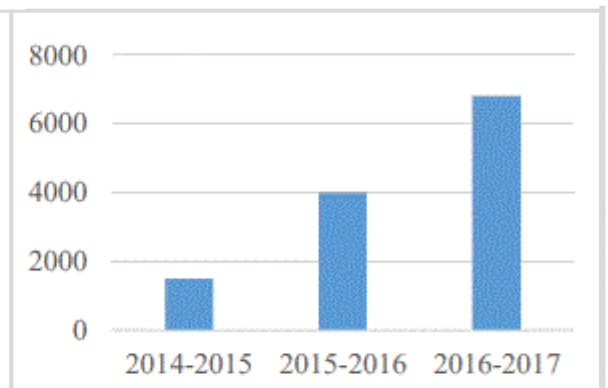
출처 : 이란통신연구센터(ITRC)

〈국제 인터넷 대역폭(Gbps)〉



출처 : 이란통신연구센터(ITRC)

〈국내 인터넷 대역폭(Gbps)〉



출처 : 이란통신연구센터(ITRC)

## 이란 ICT 정부 사업 전망

---

이란 ICT 부문 정책은 제 6차 5개년 개발 계획 (2016 ~ 2021년)이 세워져 있으며, 정책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국가 정보 네트워크 (National Information Network : NIN)에 의한 전자 정부 발전
- 풍부한 사이버 콘텐츠 개발
- NIN의 실시 완성, 개발, 네트워크 보호
- 이란을 중동 지역의 우편, 통신, 정보 교통 교류의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
- 사이버 공간의 국제 교류에 효율적, 효과적, 목표 지향적으로 참여
- ICT 부문의 인프라 확대
- 우주 기술 개발, 유지 및 사용
- ICT 부문에 297억 2,000만 달러의 투자를 통해 ICT 부문의 GDP 대비 비율을 4%로 높임
- 제 6차 5개년 개발 계획의 끝까지 완수하여 315억 달러의 시장 규모 진입

## 이란 ICT 정부 조직 및 기업

---

이란 ICT 주요 정부 조직 및 기업은 다음과 같다.

- 이란 정보 통신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ICT) : 우편, 통신 등 다양한 정보 통신 분야에서 정책 담당
- IT 고등 평의회 (High Council of Information Technology) : IT 부서의 정책 담당 및 국가 전략 수립 담당
- 우주 고등 평의회 (High Council of Spac) : 연구 위성 제조, 발사, 사용 및 우주 부문의 중장기 계획의 승인, 정책 담당
- 이란 휴대 전화 시장은 주요 기업 6개사가 존재하지만, MTN Irancell와 Mobile Telecommunication Company of Iran (MCI), 이 2 개사가 3G / 4G 네트워크 도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이 시장의 9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

## 이란 ICT 정부 규제

이란 국내의 모든 ICT, 라디오, 우편 서비스 및 장비는 통신 규제 당국 (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 CRA)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CRA는 국가의 무선 주파수 감시도 담당하고 있으며 라디오, ICT, 우편 서비스 부문의 규정, 서비스 요금 등의 통지를 담당하고 있다.

## 이란 ICT 개발 계획

이란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Company (TIC)는 중국의 Huawei 및 Fibre Home, 핀란드 Nokia의 3사와 손 잡고 광 네트워크를 확대, 이란 내 FTTH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Huawei는 테헤란시와 다른 두 지역에서 FTTH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며, Nokia는 4 지역, 나머지는 Fibre Home이 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Huawei는 이란 내 고정 통신 및 이동 통신 네트워크의 통합과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아공의 MTN는 이란 고정 광대역 업체인 IranianNet Communication and Electronic Services에 3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FTTH 네트워크의 설립과 확장을 위해 4억 5,000만 달러를 대출받고 있다.. 핀란드 Nokia는 LTE-TDD 기술 이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이란의 LTE-TDD (4G) 서비스 제공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있다.

## 이란 ICT 시장 내 과제

이란 ICT 시장의 성장은 인터넷을 긴밀하게 관리하는 이란 정부의 규제 정책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Facebook, YouTube 등의 유명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 규제도 포함된다. 또한 이란 모든 웹 사이트는 문화 이슬람 지도자 교육부 (Ministry of Culture and Islamic Guidance)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다. 한편, ICT 장관이 부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통신 장비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인터넷 인프라의 독점권을 쥐고 있는 점도 문제로 손꼽힌다. 느린 인터넷 연결 속도와 높은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TIC에 의한 가격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출처

일본 무역진흥기구, 이란 산업 가이드북, 2018.03

<https://www.jetro.go.jp/world/reports/2018/01/5d3698a309dab63b.html>